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영화배우 차승원 6년만에 드라마 컴백

배우 차승원(39)이 SBS TV '시티홀'을 통해 6년 만에 드라마에 컴백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차승원은 4월29일 첫선을 보이는 '시티홀'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천재형의 관료를 맡았다.

그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2003년 KBS 2TV '보디가드' 이후 6년 만이다.

'파리의 연인', '온에어'의 김은숙 작가-신우철 PD 콤비가 손잡은 '시티홀'은 소도시 시청을 배경으로 말단 공무원에서 최연소 시장이 되는 여자와 천재형 관료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

여주인공으로는 김선아가 캐스팅됐다.

내달 방영 새 시트콤 '태희혜교지현이' 화제 만발

'시트콤의 반란' 아줌마가 접수한다

시트콤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작이 가장 까다로운 장르로 꼽힌다. 드라마와 코미디의 경계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트콤은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며 비현실적인 설정을 쏟아내는 요즘 드라마에 밀려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MBC가 내달 2일부터 새로운 시트콤 '태희혜교지현이'(극본 김현희 등, 연출 전진수 · 이지선)를 선보인다.

▲시트콤 소외 계층 30~50대 여성 공략

'태희혜교지현이'는 그동안 시트콤의 주요 시청자로 인식되지 않았던 30~50대 여성 시청자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붙인 제목이 '태희혜교지현이'다. 톱스타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이 연상되는 제목이지만 극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 PD는 "우리나라 여자 중에 태희, 혜교, 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제목을 착안했다"며 "이 이름을 가진 세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도 자기의 가족과 인생에서 주인공이고 스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시트콤은 또 이전 홈시트콤과는 달리 한두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게를 운영하는 부녀회장 박미선을 중심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정선경, 라디오작가 홍지민, 전업주부 김희정, 부잣집 며느리 최은경 등 '동네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시트콤 '베테랑'과 새 얼굴의 조화

'태희혜교지현이'에는 인기 시트콤에서 맹활약했던 '베테랑'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트콤 '태희혜교지현이'의 출연자들

우선 박미선과 선우용녀는 최고 인기 시트콤이었던 SBS '순풍산부인과'에서 모녀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시트콤에서는 친한 이웃 관계로 설정됐으며, 선우용녀는 정선경의 시어머니로 나온다.

또 윤종신은 '논스톱' 시리즈에서 오랫동안 코믹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김국진도 '코끼리' 등의 시트콤에서 웃음을 전했다.

아울러 기획을 맡은 권익준 PD는 '남자셋 여자셋'을 연출했고 '논스톱'도 탄생시켰다. 전 PD도 '논스톱' 시리즈 연출을 통해 잔뼈가 굵은 시트콤 전문가다.

김현희 작가도 '남자셋 여자셋', '논스톱'을 집필했으며 SBS 드라마 '워킹맘', '강남엄마 따라잡기' 등을 통해 요즘 주부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낸 바 있다.

이들 외에 이 시트콤에는 '뉴페이스'도 나올 예정이다. 베테랑과 뉴페이스의 조화가 이 시트콤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을 보인다.

뉴페이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연예인은 문희준이다. 그는 정선경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으로 19세부터 29세가 된 지금까지 아이돌 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춤을 잘 추지만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 금세 지치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몰래 보약을 먹는 다소 안쓰러운 캐릭터다.

전 PD는 "문희준은 극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진, 앤디, MC몽 등이 시트콤을 거쳐 만능엔터테이너가 됐듯이 문희준도 이번 시트콤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BS 드라마 '온에어'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출신 홍지민은 '전업주부' 김국진의 아내로 라디오 작가역을 맡았다.

SBS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서 모지란 역을 맡아 사랑받은 김희정도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건 전업주부로 시트콤 연기를 처음 선보인다. 최은경 전 아나운서도 이 시트콤을 통해 본격 연기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인디계의 서태지' 6인조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첫 정규 음반 낸다

네티즌 사이에서 '장교주', '인디계의 서태지'로 불린 장기하를 주축으로 한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첫 정규 음반 '별일 없이 산다'를 27일 발표한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지난해 3월 장기하(보컬, 기타, 타악기)를 중심으로 정중엽(베이스, 코러스), 이민기(기타, 코러스), 김현호(드럼, 타악기, 코러스), 미미시스터즈(안무, 코러스)로 결성된 6인조 밴드.

이들은 지난해 인디 레이블 붕가붕가레코드에서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제작한 데뷔 싱글 '싸구려 커피'를 발표해 1만장 이상을 판매해 화제를 모았다.

말하듯 노래하는 장기하의 창법, 흥겨운 복고 사운드, 생활 밀착형 가사, 코믹한 안무가 빚어낸 독특한 음악색깔 덕에 공연 영상은 인터넷에서 퍼져나갔고 이들은 몇차례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했다.

첫 정규 음반인 만큼 '별일 없이 산다'는 가내수공업을 통한 소량 생산방식을 택하지 않고 공장에서 찍어낸다.

데뷔 싱글에 수록된 '싸구려 커피', '느리게 걷자', '정말 없었는지' 등 3곡, 공연을 통해서만 소개된 '달이 차오른다, 가자', '별일 없이 산다' 등 4곡까지 총 13곡이 수록된다.

붕가붕가레코드는 "마지막 수록곡에서 따온 음반 제목 '별일 없이 산다'는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며 즐겁게 별일 없이 산다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삶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